

일본에는 소위 어삼가(御三家) 호텔이라는 것이 있다. 일본 최고의 호텔을 말함인데, 그 어삼가란 오후라 호텔, 제국 호텔, 뉴 오타니 호텔을 말함이다.

나그네는 오후라나 뉴 오타니에서는 잠을 자 보았지만, 제국호텔은 아직 이용하질 못했다. 날씨가 몹시 추운 날 동경의 싸구려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왔다. 동경에서 교토로 신간선을 타고 내려갈 계획인데, 시간이 세 시간쯤 여유가 생겼다. 무얼할까 하고 망설 이다가 동경에 오면 이따금씩 들르는 긴자(銀座)의 곤도 서점엘 들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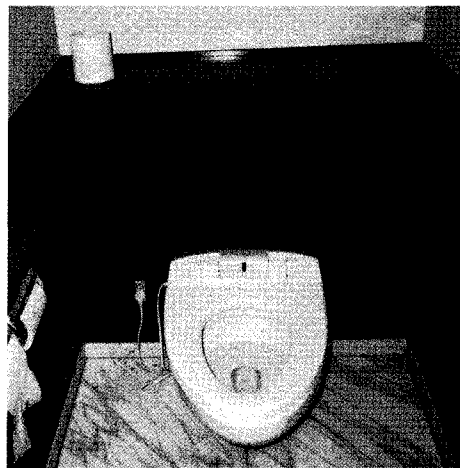
오전이어서 책 구경하기엔 안성맞춤인 시간. 한참 책 구경을 하고 이와나미 문고에서 나온 <페리의 원정소사>라는 문고본 한권을 산 후에 커피를 한잔 마시기 위해 긴자 거리로 나왔다. 한참 걷는데 아뿔사, 배가 아프다. 호텔에서 나오기 전에 볼일을 다 보고 나와야 하는데 그만 깜박했다.

자, 어디로 가서 볼일을 볼 것인가. 근처의 커피숍을 찾아 찾아갔다. 차도 시키기 전에 화장실부터 갔다. 문을 열고 보니 화장실이 너무 작다. 변기에 앉으면 무릎이 벽에 닿을 정도이다. 긴자는 그림엽서 한 장 크기의 땅이 우리 돈으로 1억 원씩 하는 곳으로 땅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보니 정말 작은 화장실을 만들었다.

여기서라도 볼일을 볼 것인가, 잠시 망설였다. 그러나 불과 대여섯평 밖에 안되는 작은 커피숍에 종이장 같은 도어문 밖엔 손님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.

이런 곳에서는 콩 소리 한 번 낼 수도 없다. 편한 마음으로 볼일을 볼 수 없는 곳이다.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다. 어디로 갈 것인가.

문득 제일 편하게 일을 볼 수 있는 곳은 호텔 화장실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.



▲ 일본의 화장실은 땅값이 비싼 이유로 대부분의 상점의 화장실은 좁은 변이다.

긴자에서 가까운 호텔 중에 손님이 무시로 출입할 수 있는 호텔은 어디인가 잠시 머리를 굴렸다. 잠시 생각해 보니 그곳은 제국호텔이었다. 그렇다. 제국호텔로 가서 볼일을 보자. 하지만 걸어서 가기에 먼 기본요금 거리 정도여서, 택시를 잡아타고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로 후다닥 뛰어 들어갔다. 화장실에는 향수 냄새가 은은하다. 타일이 붙여진 바닥은 청결하기 이를 데없다. 화장실 안의 온도도 25도 정도는 될 것 같다. 엉덩이를 까고 있어도 전혀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. 한마디로 쾌적 그 자체이다.

볼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쾌적함, 안락함, 청결함의 세 요소를 모두 다 갖추었다.

과연 어삼가의 명성에 맞는 호텔이다.

신문이라도 한 장 있으면 덜 무료하겠는데 그건 없다. 아쉬운대로 제국호텔에 왔으니 내가 알고 있는 이 호텔의 역사를 한 번 생각하면서 볼일을 보기로 했다.

제국호텔은 동경 최초의 호텔이다. 제국호텔을 지은 사람은 오키라 기하치로라는

자인데, 이자는 메이지 시대(1868~1912)에 미쓰비시, 미쓰이 재벌과 더불어 오키라 재벌로 불리우던 일본 3대 재벌의 하나이다.

그는 본래 니이가타의 건어물 도매상의 점원 출신인데, 메이지유신 때 무기판매로 폐단을 벌였다. 그는 수십개의 회사를 만들었는데,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일본 최대의 건설회사인 대성건설이다. 또한 이 자는 조선허의 김제에도 수십만평의 논을 가지고 있었고, 우리나라의 선린상고를 만들기도 했다. 그러나 이 자의 악명은 <오키라 컬렉션>이다. 이른바 오키라 컬렉션은 일제 때 조선에서 반출해간 5만점 이상의 유물이 그 중심이다. 한마디로 문화재 도둑인 것이다. 그 자가 만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제국호텔이다.

그때가 1891년 쯤이었다. 당시 일본에는 구미 각국의 외교사절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. 당시 이등박문이 그에게 현대식 호텔을 한채 지을 것을 권했다.

외교사절들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, 담소도



▲ 동경의 기차역은 옛스러운 멋을 지아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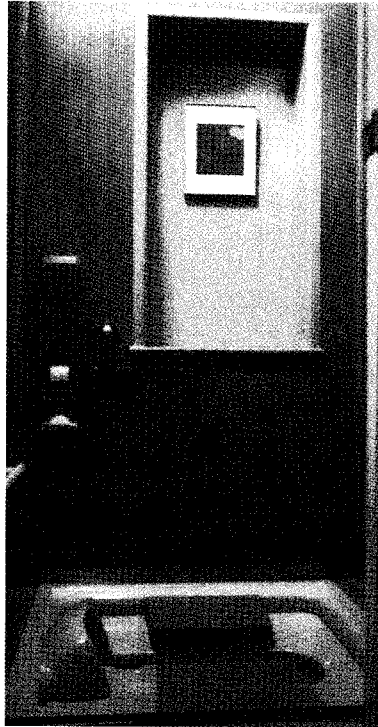
하면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호텔이 하나쯤은 필요했던 것이다. 그렇게 해서 제국호텔이 지어졌는데, 실제로 이등박문은 이 호텔이 지어지고 나서 거기서 자주 식사를 했다. 오늘날 이 호텔은 한국의 VIP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이기도 하다.

제국호텔이 지어지기 전에 이 자리에는 동경여관이라는 여관이 있었다. 이 여관의 장기 투숙객의 한 사람으로 김옥균이 있었다. 그는 갑신정변에 실패한 망명객으로 일본에 건너와서 이 여관에 한때 숙소를 정하고 있었다. 그러니까 그는 제국호텔 자리에서 잠을 자주 자던 최초의 한국인이었다.

그 다음으로 아마도 故 장기영 한국일보 회장이 이 호텔을 자주 이용한 분이었던 것 같다. 장기영 회장은 이 호텔의 커피숍에서 역시 이제는 고인이 되어버린 건축가 김수근을 만났다. 당시 김수근은 동경대 대학원에서 건축을 공부하던 학생.

그의 비상한 재능을 알아본 장기영 회장은 그에게 학비와 용돈을 대주고 있었다. 바로 그 학비와 용돈을 전달해 주던 곳이 이 제국호텔 커피숍이다.

그런 경우가 또 있다. 남방개발의 사장이자, 오늘날 코데코 에너지를 설립한 최계월 회장도 이 호텔에서 오늘날 在日 화가로



명성을 떨치고 있는 화가 이우환씨에게 그림 물감 값과 술 값을 이 호텔에서 대주었다.

오늘날 이 호텔을 장기 이용하고 있는 일본의 유명인사 중의 한 사람은 50대의 오치하이 노부히코 라는 일본인이다.

이 사람은 국제적인 저널리스트로 그가 쓴 책 50여권이 모두 베스트 셀러이고, 책방에는 <오치하이 노부히코 서가>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필명을 날리고 있는 인물이다. 이 사람은 1년에 6개월 정도를

이곳에 장기투숙 하면서 집필을 하고 있는 인물로 유명하다.

아웃 풋을 하면서 이쯤하니 불일이 끝났다. 자, 이제는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할 차례. 헌데 물을 내리려고 보니 물내리는 변기꼭지가 없다. 낭패였다. 그때부터 나는 눈을 부릅뜨고 화장실 안의 모든 기물을 점검해 나갔다.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. 용도를 알 수 없는 벨이 하나 있는데, 그것이 틀림없으리라는 판단이었다.

혹시 비상벨이 아닐까 하면서 벨을 누르는 순간,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. 작년 1월의 제국호텔 화장실의 일이었다.

자, 다음 호에도 세계의 화장실을 찾아 떠나보자.

홍 하 상 (MBC 다큐멘터리 작가)

- 1955년 서울출생
- 중앙대 문예창작과 졸
- '90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
- '98 방송위원회 우수기획상(금강조 1400년의 약속 어떻게 지켰나)
- 작품 : <명작의 무대>, <명시기행>, <세계의 교육, 그 현장을 가다> <그때를 아십니까>등 다큐멘터리 270여편
- 저서 : <일본뿔골목 옛보기>, <열두걸기 모노의 속사정> 등